

第117回(定例會)

#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1年 12月 3日(月) 10時04分

### 議事日程(第2次 本會議)

- 1. 鐘路區廳長에 대한 區政質問의 件

### 附議된案件

- 1. 鐘路區廳長에 대한 區政質問의 件 ..... 1面

(10時04分 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鐘路區廳長에 대한 區政質問의 件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로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열네 분으로 질문접수 순서에 따라 12월 3일 오늘은 宣相善議員 외 5인의 의원이 질문을 하고, 12월 4일 내일은 吳錦南議員 외 7인의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시간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일괄 질문과 오후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오전 일괄 질문과 오후 일괄 답변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접수된 순서에 따라 宣相善議員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相善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相善議員 변화하고 있는 종로의 동쪽 관문 승인2동 출신 宣相善議員입니다. 존경하는 金以煥 議長님, 金正大 副議長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 건설에 노심초사하시는 鄭興鎭 區廳長님, 盧張鐸 副區廳長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방청해 주시는 승인2동 주민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달 12월에 접어든 지도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금년 한해는 어느 해보다 복잡 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미국의 테러사건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백색가루 공포인 탄저병, 25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불안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국민의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햇볕 정책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전쟁이라는 공포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지혜와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겠습니다. 돌아오는 2002년 5월이면 21세기에 들어 처음으로 맞는 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 경기가 우리 나라에서 치러

지게 됩니다. 수많은 국제행사를 통해 우리의 역량을 세계에 과시해왔지만 월드컵만큼은 그 어느 행사보다도 큰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깊이 인식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의 다섯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재정 확충을 위하여 서울시에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종로구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심장부로서 청와대, 정부 종합청사, 헌법재판소 등 공공기관이 106개소, 교육기관 68개소, 외국공관 27개소 등이 있는가 하면 조선조 500년의 종루(鐘樓)가 위치한 장소로서 국가를 상징하는 수도 서울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어떻습니까? 2001년 일반회계 기준 66.3%에 그치는 등 그 명성에 걸맞지 않는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강남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강북지역 개발 억제라는 잘못된 정부의 정책도 한 요인이 되겠지만 수도 서울의 중심지로서 재정수요는 많은데 세금을 받을 수 없는 비과세시설이 너무도 많다는 특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즉, 주요 비과세시설은 창덕궁, 경복궁, 창경궁, 경희궁, 운현궁 등 고궁과 국보 69점, 보물 27점, 사적 16점, 천연기념물 7점 등 총 284점의 문화재와 조계사 본산,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기독교 연합회관, 천도교 수운회관 등 대표적 종교시설의 운집 등으로 인하여 비과세 대상면적이 구 전체의 66.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산수요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주간 유동인구 200내지 300만명의 집중 유입과 국가 기간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많은 예산 부담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서울시 중심지역의 하나인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100%에 달하고 있음은 이를 비교 시사하는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책으로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자치구간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고려사항을 두어서 서울시 조정교부금 배정비율을 가감하여 구간 재정규모를 조정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를 보면 자치구간 특성을 고려하는 측정치 가운데 우리 구의 문화재나 비과세 종교시설, 국가 기간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비용 부담이나 비과세 점유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항상 조정교부금의 배정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2000년 12월 15일자로 본 의원의 발의로 관련조례 개정을 건의하는 우리 구의 건의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우리 구에서는 상당한 조정교부금의 추가 혜택이 기대되므로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조례 개정 발의를 한 지는 1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구청장께서는 본 건의안에서 서울시에 상정이 되었는지 상정이 되었다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관철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또 앞으로 개정 전망이나 구의 후속 조치사항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공용지 관리상 미비점을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국·공유의 공공용지가 총 9,506필지에 248만 5,000㎡의 면적을 갖고 있으며, 종류별로는 도로부지가 8,687필지 17만 7,000㎡, 구거부지가 638필지 63만 8,000㎡, 하천부지가 181필지 27만 6,000㎡이며, 이 부지에서 사용료 수입은 연간 도로부지가 10억 5,000만원, 하천·구거부지가 2억 6,000만원 등 총 13억원 가량의 공공용지 사용료 수입을 가져오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점용료 수입은 도로부지는 도로법 제80조2에서 정한 점용료 징수나 허가 미신청자에게는 변상금을 징수하고, 하천이나 구거부지는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에서 정한 점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용지인 도로부지, 하천부지, 구거부지 등은 토지대장상 지목만 구별된 상태이지 실제 점유형태에서는 동일한 대지형태의 부지로 점유용도도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부지 등의 효용성이 동일할 경우는 점용요율도 동일하여야 함이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소하천정비법 적용을 받는 부지만은 여타 하천법, 도로법,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부지와는 점용요율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공공기관의 공공용지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로법 제 80조의2, 하천법 제38조제4항, 공유수면관리법 제 10조 등에서는 점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 요율을 점용료의 120/100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독 소하천정비법에서는 변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지칭하면서 100/100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음으로써 이웃 간의 같은 공공용지 점용일 경우라도 점용요율이 상이하게 되어 행정의 공신력이 크게 실추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적 결함이 하천법 개정 이후인 2001년 1월 16일부터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았다면 현재까지 이를 치유할 노력을 어떻게 전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현재 소하천정비법 적용대상이 구기천이나 평창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대상부지가 얼마나 되며, 이중 변상금 부과대상과 부과요율은 어떻게 하였는지, 또한 인접지역에서는 요율의 불합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민원 제기 여부와 민원이 제기되었다면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시설관리공단 경영 혁신대책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은 종로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의 개선과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97년 11월 1일자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1998년 1월 7일자로 태동하여 현재 92명의 직원과 예산 58억 7,000만원의 예산규모로 운영되면서 연간 약 7억 5,000만원 정도의 흑자수익을 올리고 있는 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전국 각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단, 공사의 상당수가 방만한 경영과 전

문성 부족으로 적자 운영되는 곳이 다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고자 하나 관련 임직원의 진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관리공단도 현재의 흑자기조가 감가상각비 등 정확한 손익계산 처리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공단 운영수익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서비스업은 원래 민간기업과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 경제논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도 적지 않은 불안감이 내포되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심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대로 최근 관리공단의 운영 프로그램과 유사한 민간시설이 인근 한두 군데 지역에서 건립되고 있다는 설이 있다는 것은 공단으로서는 큰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며, 경영 혁신을 통한 특단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변 민간시설과의 경쟁관계 등 장기적인 주변 여건의 변화를 예측하고, 시설현대화를 위한 개·보수 계획, 민간시설과 경쟁력이 있는 프로그램과 폐지대상 및 신규발굴 프로그램의 개발, 사기업 경영시스템의 도입과 전문인력의 배치 문제 등 종합적이고 치밀한 중장기 경영 전략 계획의 수립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2002년도 경영수지 전망을 우선 밝혀 주시고, 또한 장기적인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 생활민원에 대비하여 종합처리반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고비용 저효율의 사회 기본시스템의 개혁에 큰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 여러 분야에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여 큰 성과도 거양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개혁에는 건국이래 유지돼온 다단계 행정구조를 개혁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합리성을 도모함은 물론 인적 물적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예산을 대폭 절약하는 등 여러 측면을 고려 동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그 기능을 구에서 대신하도록 함은 물론 동은 주민 자치능력의 배양을 위한 광장으로 활용하도

록 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구의 전 동도 기능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의 동기능 전환도 주민의 생활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다는 부작용이 지금 크게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불만도 점증되고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실례로 현재 동의 소파 보수사항이 있을 시 동기능 전환 이전에는 동에서 통담당이 파악하여 복지사업 예산으로 처리까지 하였으나 지금은 주민이 불편을 느끼더라도 동 소관이 아니므로 구청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 전화하여야 하는지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도 모르고, 또한 어렵게 소관부서를 찾아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구청 내 관계부서를 찾아 통보하면 구청 담당자는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에 가더라도 현장을 잘 찾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생활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종합민원실 기능과 같이 가칭 「주민 생활민원 종합처리반」이라는 데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신고창구를 일원화하여 신고접수번호의 통일화, 신고접수직원의 상주체제, 장비·인력 및 처리반의 자체 가동, 동 위치 파악을 위한 모니터체제 구성 등 종합시스템을 운영하여 생활민원을 원스톱 처리제로 처리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와 소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대다수 직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사무국의 독립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어언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의 뿌리가 착근해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의회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

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회의진행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이 미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승진·전보 등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눈치를 아니 볼 수가 없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우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해 효율적인 견제 역할을 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아울러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독립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국회사무처와 같이 지방의회 사무국도 집행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수 있도록 법개정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앞으로 법개정을 건의할 어떠한 계획이나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에게 가르침과 이끄심을 주시는 승인2동 주민 여러분께 방청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밝아집니다. 생각을 바꾸면 아름다운 종로가 될 것입니다. 바뀌어진 생각으로 희망찬 2002년 새해를 맞이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宣相善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東奎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奎議員 변화와 희망이 넘치는 창신3동 출신 李東奎議員입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선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늘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해주신 金以煥 議長님을 비롯한 선후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만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鄭興鎭 鎭路區廳長님과 또한 盧張鐸 副區廳長님! 집행부의 전체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물 제1호인 동대문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다. 창신동과 송인동이 동대문에서 종로로 편입된 지도 벌써 어언 4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구 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창신3동이 동대문이나 또는 종로구나 본 의원에게 묻는 경우가 요즘도 종종 있습니다. 더불어 창신동과 송인동이 종로구 관할이 된 지 26년이 지난 지금도 동대문구 관할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신동, 송인동 지역주민들에게 그 또한 대단히 불쾌한 일입니다. 종로구민이라는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기억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창신동, 송인동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경험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현재도 창신동이 동대문구로 인식되어 있는 이유는 동대문이 창신동에 또는 송인동에 위치하고 있는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서울시와 동대문구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鄭興鎮 구청장께서는 창신, 송인지역 주민들의 명예를 위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에서는 무엇 때문에 4반세기가 넘도록 종로구에 있는 동대문을 명칭으로 하는 구명을 사용하고 있는지, 동대문구는 자존심도 없는지 그 또한 모르겠습니다. 왜 종로구에 있는 동대문으로 구의 심벌 마크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 또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동대문을 동대문 관할구역이라고 이전해가는 것도 아니라면 당연히 구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지명이 변경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성동구에서 광진구가 분할되어 새로이 만들어진 것처럼 동대문구는 새로운 구 이름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鄭興鎮 區廳長께서는 창신, 송인 지역의 주민들이 종로구민으로서 자긍심과 명예심을 지켜야 할 것이며 더이상 동대문구민으로 오인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기능 전환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해 말부터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각 동마다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 축소에 따라 동에서 담당하던 청소, 주택, 토목, 세무 분야 업무가 구로 환원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구청의 여러 간부나 직원들이 잘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의 문화육구 충족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의 존재 이유와 가치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주민 생활을 보호하고 불편사항을 지체 없이 해소하는 데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주민들은 서민들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동사무소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먹고 살기에 바쁜 저소득 주민들에게 있어서 문화육구 충족은 먼 나라 사람들의 일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엄연히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기능 전환으로 동사무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서민계층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현장과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동사무소입니까? 구청입니까? 지난 여름 수해 때 동사무소 기능 축소가 수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에서 이관받은 업무를 동에서 수행할 때보다 훨씬 더 퇴보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퇴보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구청 직원이 각 동의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동기능 전환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례를 들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 전에는 각 동별로 소규모 지역편익사업비를 1,000만원 정도 배정해서 계단 보수, 훼손된 철조망 보수, 위험난간 보수 등 소규모 편익사업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토목과에서 각 동의 소규모 편익사업을 일괄하여 시행하게 되고부터는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소규모 사업의 추진이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동에서 직접 시행

하면 되는 것을 동에서 보고하면 구청에서는 각 동의 물량을 수합하고 현장을 조사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각 동의 자잘한 공사까지 구청에서 수합하여 일괄해서 시행한다는 그 자체가 무리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鄭興鎭 區廳長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시정하고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소규모편의사업비를 부활하여 2002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창신동 13번지에 소재한 서일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지장전주를 이설하면서 보안등 하나를 철거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이를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보안등 신설예산 부족을 사유로 보안등 설치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보안등을 어떤 사유로 철거를 했으면 철거한 것을 인근에 옮겨서 설치해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보안등이 있어야 할 곳에 설치되어 있던 그 보안등이 없으면 주민들이 당장 불편해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철거를 하고, 철거한 것을 다시 설치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준다는 것이 바른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은 보안등 시설, 이설, 유지관리 등 보안등 관련 2001년도의 전체 예산내역과 2002년도의 예산 그리고 금년도의 각 동별 보안등 신설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을 각 동별로 관리할 때보다 구청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많은 예산의 절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통합관리에 따른 예산절감액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안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동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한번만 신고하면 즉시 전구를 교체하던 것을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보고를 하는 등으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주민들이 같은 내용을 2~3번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구정을 불신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행정의 퇴보가 일반 주민도 인식할 정도가 되어서는 동기능 전환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려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당연히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주무국장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청소와 무허가건물의 신발생 및 무단 증·개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지만 많은 다른 의원님들도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문제의 핵심은 무단투기입니다.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와 단속활동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단투기가 예상되고 또 우려가 있는 업소가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마디의 말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런 활동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허가건물의 신발생과 무단 증·개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그 업무를 방치하고 있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현재 각 동의 현원은 동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0~14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동기능 전환 이전 인력의 1/3 정도가 감소된 수치입니다. 순수 민원창구 직원과 운전기사, 여직원을 제외하고 또 여기에 휴가자나 교육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 기능유지도 벽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동사무소에는 관내순찰을 담당할 직원도 없고 여력도 없는 실정입니다. 관내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동에서조차 주민의 생활 현장 파악이 제도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민원의 신속한 파악과 즉시 대처를 위해 동사무소의 인력을 동별로 최소한 1명 정도라도 증강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일부 구에서는 동기능 전환 이후 이관업무 및 인원의 일부를 다시 환원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은 거대한 정책적인 문제보다는

쓰레기의 적기 수거, 보안등이 고장나면 바로 수리해주고 동사무소의 직원이 웃으며 인사하는 것 등의 작은 문제에 민감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감사하고 감동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기능 전환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장이 중시되는 업무, 다시 말해서 동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업무는 다시 동으로 환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청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송인사거리에서 낙산삼거리에 이르는 지봉로는 한마디로 청소 사각지대입니다. 요즘은 겨울가뭄이 극심한데다 지봉로변 좌우측에 차량주차장 허용하고 있어 모래와 먼지와 쓰레기로 대단히 불결합니다. 아침마다 어린이들과 학교 앞 청소를 하는 창신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도로에 모래와 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는 왜 물청소 한번 안 해주느냐고 본 의원에게 물을 때 참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했습니다. 1등 구민이 있고 2등 구민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봉로도 4차선 도로이고 창신, 송인지역에서 지봉로는 지선이 아닌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구청장님께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룡사에서 낙산삼거리 구간은 성북구 삼선동, 보문동과 경계지역인데 이 구간은 우리 종로구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등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은 징수하면서 청소 등의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로수에서 떨어지는 낙엽의 양이 엄청납니다. 많은 양의 낙엽을 연로한동의 공공근로자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관계과장은 도로별, 가로별 환경미화원 배치현황과 도로물청소 실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지봉로에도 미화원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물청소도 실시해서 지봉로도 타 간선도로처럼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 점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점상문제 못지 않게 심각한 것이 차도와

인도의 점용문제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인도변 점포의 공도 점용은 어느 동,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면도로변 점포에서 상품적치를 위하여 도로상에 벽돌과 시멘트로 기초를 쌓고 각종 상품과 전자오락기 등을 설치하고 심지어는 눈, 비를 가릴 목적으로 비닐이나 천막을 쳐서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미관을 훼손하고 많은 양식있는 주민들로부터 아무런 단속과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과 불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을 관계공무원은 알고나 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鄭興鎭 區廳長님께서서는 공도 점용의 심각성을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공도 점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강력한 단속으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4일 제113회 정례회의 시 청소문제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을 한 바 있는데 지난번에 질문한 사항 중 다음 두 가지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신동 23-315 소재 목재파쇄장에서 목재류 외 냉장고까지도 분해 해체하는데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鄭興鎭 區廳長님께서서는 프레온가스가 부착된 냉장고는 월 80대 정도라고 하셨는데 월 80대 정도의 프레온가스를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협업체에서 수익이 되지 않는 무단투기 쓰레기 대책으로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수거비용을 대협업체에 지급하는 개선대책을 곧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확보한 예산액과 현재까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를 위해 별도 집행한 예산액을 각 동별, 용역업체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만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以煥 李東奎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洪起瑞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起瑞議員 명륜3가동 출신 洪起瑞議員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선출 해주신 명륜3가동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서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명륜동 마을버스 성균관길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민의 발이라고 환영받고 있는 마을버스를 서울시조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사고 있는 행정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바 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하오니 법과 조례만을 인용하여 어렵다는 답변은 피하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명륜동 마을버스는 '92년도부터 구청장의 인가사항으로 그동안 성균관길을 이용하며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 속에 잘 운영되어 오던 중 성균관길을 문화탐방길로 지정, 서울시에서 일방통행로로 지정, 공사를 하던 중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밀려 양방통행으로 재조정되어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 당시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어 공사 중이어서 임시조치로 마을버스 노선을 구민생활관으로 변경 운영되고 있어 고지대에서 동사무소 민원 시에 이용하던 민원인들의 불편, 여러모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가뭄에 단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공사가 양방통행으로 환원됨과 동시에 마을버스도 환원시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성균관길 문화탐방길 조정 시에도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어렵다는 주장을 촉구하였으나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다 집단민원의 강력한 투쟁에 밀려 환원 조치하였는데 마을버스 운영도 만약 성균관길로 운행되지 않으면 지난번 민원보다 더 험악한 집단민원이 우려되니 구청장께서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상 하에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더욱 鄭興鎮 區廳長님은 25개 자치구 회장을 역임하시고 어느 구청장보다 힘이 막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본 의원은 꼭 성사되리라 믿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 민원을 꼭 해

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막강한 구청장님의 힘을 종로구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희망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권 재발급수수료 과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2002년 월드컵을 비롯한 국제대회 및 국가간 교류가 빈번하여 외국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우리 종로구청을 포함한 서울시 6개 구청에서 외교통상부의 여권 발급업무를 대행하며 그 중에서 우리 종로구는 대사관 및 여행사가 밀집되어 있어 여권 발급업무가 다른 구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여권발급수수료는 여권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거 일반복수여권의 경우 신규발급은 4만 5,000원, 기재사항 변경은 4,500원이 소요되며 여권의 유효기간은 여권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일반여권의 경우 5년으로 최초 발급 후 기간연장을 포함하여 최장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 최초 발급 후 유효기간이 총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기간연장을 포함한 기재사항 변경신청시 4,500원, 10년 동안 사용한 후 신규 재발급 신청시 4만 5,000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여권발급 신청자 대부분이 여권발급 후 10년 이상을 사용하는 점과 여권 제작단가 등을 감안하면 과다한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10년이 지나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행 기간연장과 동일하게 4,500원 수준으로 하거나 여권의 유효기간을 최초 발급 후 20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의 여권 발급업무가 외교통상부 업무를 대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구청장께서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외교통상부 등에 직접 요구한 적이 있는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요구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혜화초등학교 부지 사용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혜화초등학교가 2002년 상반기에 혜화여고 자리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 후 학교부지 사용 건에 대해 '99년 동료의원 吳弼根議員이 금년 상반기 정례회의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워낙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오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디자인전문대학이나 예술전문대학 등 학교를 유치하고자 하지만 종로구청 계획은 종로구 구립운동장으로 시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주민들은 성균관대학교에서 매입하여 학생들 기숙사를 건립한다는 소문에 휘말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고지대 주민들은 하숙 및 자취방 임대료가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지만 만약 열에 하나라도 학교에서 매입한다면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성균관대학교와 종로구청간에 자매학교로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사업을 중단하도록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에 안정을 주기 위해 어떤 일이 있어도 성대에서 매입하는 일은 막아야 되고 구청 계획대로 주민 구립운동장으로 건립하면 주민 건강증진에도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보며 또 건설시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건설하면 명륜동, 혜화동 주차난은 해결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희망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로 관내에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은 안전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로 관내 가로등 3,988등, 보안등 9,230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폭우 때 수도권에서 감전사고로 19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사고원인은 누전차단기, 접지시설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빗물이 고인 가로등 근처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종로구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 조사한 바로는 가로등은 누전장치시설이 100% 되어 있으나 보안등은 약 50% 정도가 아직 미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조속히 설치 완료하고 기존 설치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100% 작동하고 있는지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단 1건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예방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보건소 본소는 서부지역 효자동 사무소에, 분소는 동부지역 창신동 구민회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분산되어 있는 보건소를 종로구 인사동 110전 새마을회관 자리로 건립 이전하면 종로 중앙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효자동사무소에 있는 보건소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없어 명륜동, 이화동 등 중부지역 주민들은 교통난 불편 때문에 이용률이 적고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옥상에 설치한 에어로빅장에서 울려 퍼지는 소음소리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는 데 많은 장애가 되고 민원실이 2층에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2층까지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특히 장소가 협소하여 보건교육실이 없어 교육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적십자 병원 간호학생들이 연인원 100여 명이 보건소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데 실습을 마치고 건의사항을 기재하라고 하면 보건교육실이 없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건의 사례가 100%라고 합니다. 이제 배우는 학생들의 건의사항에도 나타나듯이 너무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를 통합 이전하여 건립하면 이런 불합리적인 점을 해소하고 예산도 경감되면서 전 구민들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중부지역 전 구민들도 보건 복지혜택을 타지역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합보건소가 마련되기 전까지 보건소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1대 운영하여 명륜동, 혜화동, 이화동, 삼청동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라도 제공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청 공사에 따른 예산 절감상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할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동안 종로구 건설공사가 크고 작은 사업을 많이 시공하였으나 조달청 방침과 부실공사를 막는다는 이유로 일반인 공사가격보다 50% 정도 과다하게 입찰케 하여 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3월부터 조달청 방침에 의거 최저가 낙찰제 방침이 하달되어 정부공사 및 각 자치구에서도 최저 낙찰제 공사입찰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이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도입하여 예산절감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종로 자치구에서 조달청 단가로 시공하였으나 가회동사무소, 삼청동사무소, 명륜3기동사무소 등 많은 공사를 했지만 하자가 발생되어 옥상에서 비가 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꼭 입찰가가 높다고 하여 부실공사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은 보편적으로 평당 250만원 정도면 훌륭하게 개인주택도 완공합니다. 그러므로 최저 낙찰제 도입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며 예산절감 등 낙찰에 대해 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 등 항목별로 입찰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저가입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원확충을 위하여 공원 및 고궁의 입장수입의 일정액을 교부받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별표2에 의한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에 의하여 현행 19개항을 적용하여 교부금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구는 서울의 심장부로서 청와대, 정부중앙청사,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공공기관이 106개소, 교육기관 68개소, 외국공관 27개소 등이 있으며 또한 북한산국립공원과 창경궁,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과 국보가 69개소, 보물 27개소, 사적지 16개소, 천연기념물 7개소 등 총 285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계사 본산,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종교시설을 포함해서 비과세 대상면적이 전체의 66.7%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호적인구는 140만이고 주간 유동인구가 200 내지 300만명 등

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수요는 시 및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심지로서 추가 부담이 유발되고 있으며, 같은 중심지역이며 인접지역인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100%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70% 내외를 유지하는 불합리가 발생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 시정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자치구간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를 두어 우리 구와 같은 입지를 가진 구의 재원을 조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측정치가운데 우리 구와 같이 예산수요는 많으나 비과세가 많아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고려 단위가 없어 조정조례로서의 기능유지가 미흡하여 2000년도에 의원 발의로 서울시에 조례개정을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국가 등 비과세와 종교 등 시설에 관한 비과세의 불합리한 시정과 더불어 북한산국립공원 구기동, 평창동에서의 입장수입이 '99년에 5억 4,000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5억 6,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고궁의 입장수입을 살펴보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의 '99년도 19억 9,000만원이며 2000년도에는 19억 3,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으면서도 재산세와 더불어 입장수입에 대하여도 한푼도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사업소 및 문화재청에 대하여 입장수입의 10%내지는 30%에 해당하는 일정액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정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하신 주민들과 언론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鄭興鎮 廳廳長님께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洪起瑞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福同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福同議員 존경하는 鄭興鎮 區廳長님과 1,4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망의 2001년도를 결산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종로5·6가동 출신 金福同議員, 뜻깊은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화의 물결에 합류하기 위한 대외경쟁력 제고와 지방화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2002년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더불어 종로구민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정책과 고품질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을 구실정에 맞게 집행함으로써 으뜸 복지구를 만드는 데 일조하여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일조하고자 먼저 주민 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척된 종로구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플랜과 실천은 가히 눈부신 발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일부 정책은 보육수요자들의 욕구와 질적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공급자의 안정적인 사업집행을 방해하는 요소도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육공급자의 안정성이 위태롭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구청장님이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육정책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모든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러한 배분과정을 통하여 최대의 경제성을 추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로구 보육사업도 이러한 틀 안에서 가르치고 보호하는 보육의 차원을 벗어나 높은 수준의 보육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영양, 물질적 정신적 건강, 안전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부모님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한다면 종로구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와 문화면에서 있어서 탁월한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육서비스는 유아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경제적 생산활동, 지역사회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입안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입안되지 못하는 구정은 특정 입안담당부서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구정집행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확정시 획일적으로 어린이집 건축을 의무화하고 자치구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역 보육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시설을 개설하고 있는 실태가 저희 종로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소 유동적이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창신동 지역에만도 2000년도말 정식적으로 관의 허가를 득하고 운영되었던 보육시설로 구립어린이집 9개, 민간보육시설 12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1월 현재 운영 중인 보육시설은 구립어린이집 8개, 민간보육시설 8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보육시설 5개소는 모두 보육수요 부족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원 또는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립 창락어린이집은 누상어린이집으로 이전되었고 민간보육시설 개구장이, 청산, 중앙, 사랑은 원아부족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에 따라 폐원 또는 휴원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일부 구립어린이집과 민간보육시설에는 인가된 보육아동을 다 채우지 못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창신2동에 구립어린이집 2개의 추가 개원을 목표로 현재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인 구립어린이집은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증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투자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차질이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설의 건축은 계속 진행시키되 시설활용 방안을

주민복지서비스를 보다 더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보육시설로 전환할 것이며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교육시설로 활용함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보육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와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종로구는 오래된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지역으로 그 중에서도 우리 구는 하수관이 오래되어 낡은 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행정을 보면 눈으로 보이는 행정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며 모든 분야에서 타구의 추종을 불허하는 틈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에 묻혀있는 하수도 관 자체는 시설한 지가 몇 십년이 지나 오래되어 낡은 하수관으로 연약한 상태여서 이제는 파손의 위기에 처해 있어 하수관이 지나가는 도로는 침하가 자주 일어나고 또 하수관의 종류를 보면 시멘트관과 토관으로 되어 있어 교체가 시급한 실정인데도 교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 지역에도 도로가 침하된 곳을 보면 어김없이 하수관이 내려앉아 도로가 구멍이 뚫린 곳에 사람이 상치났을 때 연고 바르듯이 시멘트로 발라놓고난 후 그곳이 며칠 지나면 다시 파손이 된 채 구멍이 뚫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 군데 공사를 하더라도 다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지역의 대학천 박스하수관은 대학로에서 청계천간 깊이가 4.5m로 박스로 시설된 지 약 30년이 지나도록 단 한번도 준설한 적이 없다는 지역주민들의 말에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여름 폭우시 종로구에서 처음으로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 지역에 물난리가 나 대학천 상가에서부터 청계천으로부터 역수를 하였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대학천의 준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학천 박스관 속을 장마시 서울시에서 준설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쌓인 모래흙 등이 1.5m가 쌓인 점을 보았을 때 4.5m에서 많은 빗물을 3m로는 도저히 감당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수해로 인한 피해를 더 많이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로에서 청계천 간의 박스관 준설공사를 해마다 우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지역의 수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박스관 중간중간에 준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 위에 방치해둔 철판이 내려앉아 어느 때 붕괴될지 모를 정도로 차가 다닐 때 덜컹대며 밑으로 내려앉아 요철이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긴급을 요하는 곳을 먼저 신속하게 보수공사를 하여 사전에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만가는 교통문제의 심각성은 어제오늘 안고 있는 문제점이 아니라 이제는 심각한 서울 도심의 문제점입니다. 대로는 대로변대로 주차장이 되어 버렸으며 골목은 골목대로 주차장이 된 이 시점에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교통행정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계시는데 이 말이 무색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해봅니다. 우리의 종로만이라도 모든 자동차가 원활하게 정차 없이 달릴 수 있는 교통행정을 펼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종로구에 교통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버스전용차선 질서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버스전용차선만 잘 유지된다면 이처럼 복잡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버스는 버스대로 전용차선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선 이차선 버스 마음대로 도로의 무법자처럼 주행하는 무질서에서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단속을 한다고는 하는데 전용차선에 승용차가 들어왔을 때는 사진촬영을 하고 버스가 전용차선을 이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전용차선 외의 차선을 버스가 운행하는 행위도 종로구에서는 단속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차량단속의 연간실적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실적은 얼마인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차단속은 단속요원들이 나름대로 수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대로의 단속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량에 운전자가 있으면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단속을 하지 않는데 모든 차량이 달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루종일 차를 세워두고 운전자만 앉아 있으면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다른 나라 도로교통법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종로구에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5·6가동에는 야간주차문제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주차문제의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동대문 종합시장 주차장은 낮에는 분주하지만 밤 9시 이후는 비어있는 주차장이 되는데 동대문 상권 때문에 종로6가 청계천이 혼잡하므로 종합시장 주차장을 밤 9시에서 새벽5시 사이만 이용한다면 도로 사정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 종합시장과 협의하여 과감하게 개방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광고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불법광고물이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세종로와 대학로 주변이라는 마스크 보도가 10월 26일 오후 7시 뉴스시간에 방송되었던 것을 구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잘하여 서울시로부터 상금도 많이 받았고 또 이 상금으로 좋은 일에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가 이런 불쌍사나운 뉴스의 화제가 된 점은 19만 우리 구민들에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주민들을 볼 면목이 없을 정도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말뿐이 아닌 깨끗한 종로, 진정으로 행복이 샘솟는 종로거리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두가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 종로에서 먼저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24시간 구청장께서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환경분야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종로구는 문화재가 많은 구로서 내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된 종묘공원 등 유적지 내 넓은 땅에 심어져있는 나무와 다른 구보다 월등히 많이 심어져있는 가로수와 또한 서울시에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등을 사업으로 내걸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맑은 공기가 넘쳐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민은 맑은 공기를 마셔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증하는 차량의 매연과 수많은 빌딩에서 내뿜는 탄산가스 등으로 종로거리의 숨쉬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종로구민들의 건강을 해쳐 수명을 단축하고 있는 상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의 지역에는 10톤 이상 되는 화물자동차가 길거리에 정차 후에도 화물을 모두 하역하는 시간 엔진을 공회전하는 것을 종종 보고 있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허가를 받아야만 대형트럭이 사대문 안에 들어올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소형차는 단 10분만 주차해도 단속원이 와서 단속을 하는데 화물터미널 대형 차량이 주거지까지 와서 정차하여 시동을 걸어놓고 공회전의 소음과 매연으로 지역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득력있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연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륜차를 이용하여 뒤를 따라가는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매연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소음뿐이 아닌 매연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는지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매연을 줄이기 위하여 종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을 우리 구에서 매연측정기를 도로마다 설치하여 음주운전 단속하듯이 집중적이고 연속적인 단속을 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생활 터전인 종로구는 물론 서울시의 거리가 매연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말 일본 동경시를 방문하였을 때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3일이 지났는데도 더러워지지 않았는데 우리 종로에서는 단 하루만 입어도 더러운 오염에

찌들게 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서울시가 공기 정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철저히 실천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구는 서울의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사료되며,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종로를 기피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금년에도 약 500명 가량 된다는 통계를 보면서 돌아오는 종로가 아니라 떠나는 종로가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이나마 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金福同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載弘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議員 구기동, 평창동 출신 安載弘議員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께서는 상당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바라며 수동적이며 규제적인 행정에서 적극적이며 능동적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모든 공무원 가족이 청장님을 중심으로 그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이 자리에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수요와 민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만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개선방안과 도시가스 공급의 확대방안, 도시계획과 관련한 자연경관지구 내 용도지구의 해제와 규제완화, 여객자동차 부지 문제, 고도지구 지정에 관한 문제,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문제, 노인복지관

건립에 관련한 문제, 동묘공원의 관리와 관련한 문제, 마지막으로 유료광고에 대한 질문을 구청장님께 할까 합니다. 구청장님은 성심성의껏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8월 제한적으로 실시해오던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우리 구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지하시는 대로 주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주차난이나 주차로 인한 주민들끼리의 다툼, 무질서한 주차질서 등을 확립하여 주민들에게 편익을 드리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편으로는 그러한 편익을 제공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평창동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초 시행 당시에 접수 및 배정받은 주민의 수는 시설된 500여 면 중 220여 면만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11월중 접수에는 불과 60여 명의 주민께서 접수를 하여 배정되었습니다. 상당수의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았습니. 왜냐하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꼭 있어야 할 곳과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곳 등이 주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째로 주차요금의 하향조정을 요구합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주차요금을 4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주차요금을 3만원 이하로 낮춰서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오히려 지역에 따라 빈자리로 남아있는 공간에 주민들의 이용률을 증가시키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에 따른 견인료가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5톤 미만의 차량은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역시 주민들께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 역시 개정을 건의하며 3만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도시

가스 공급률은 지난 10월 현재 82.9%이며 동의 위치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동과 비교해 볼 때 평창동, 구기동의 공급률은 68.9%에 불과하여 종로구 전체의 공급률에 14%나 미달합니다. 금년에 서울도시가스는 종로구 평창동 지역에 도시가스 조정기를 설치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평창동, 구기동의 주민들께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받으려면 과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공사와 관련한 주민의 부담률을 늘리더라도 신속한 가스공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평창동지역과 구기동 전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해소하실 생각은 없는지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제3항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말까지 당해연도를 포함한 2년 간의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의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여 조건과 지역의 현황에 맞추어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가스공급이 되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공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급이 결정되어도 공사의 착공과정에 있어 관련 부서끼리 협의과정에서 토목과와 지역경제과의 입장이 달라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많습니다. 굴착 및 조건에 입장이 달라 많은 애를 먹고 있는데 실제로 그 피해자는 주민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도시계획 문제와 관련지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연경관지구 내 용도지구의 해제와 건축규제 완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우리 구는 자연경관지구 내 용도지구의 해제와 건축규제 완화에 대하여 서울시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에 토지면적 80평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는 바닥면적이 23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0%까지 건축규제를 완화한 사

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께서는 약간의 혜택을 보았으나 실제로 자연경관지구 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동일한 혜택을 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자연경관지구 내 해당 동인 해화동과 부암동, 평창동, 삼청동 등 모든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규제완화 또는 용도지구 해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부지 용도지구 해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여객자동차 부지는 미이행 도시계획으로서 길게는 30여 년 동안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여객자동차 부지의 용도지구 해제 문제는 많은 주민들의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자치구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각종 서울시의 규제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여객자동차 부지 해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대한 행위규제를 완화한다는 발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군사시설 보고지역 내 통제구역과 제한보호지역에 대해서 고도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동에 위치한 일부 주민들께서는 국방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하여 많은 희망을 갖고 본 의원에게 질문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도지구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999년도에 세검정 지역 특히 구기동, 평창동, 홍지동, 부암동, 신영동의 가로를 따라서 많은 지역이 5층 18m의 고도지구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 고도지구 지정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구는 그린벨트와 관련지어서 부암동 100번지 일대, 홍지동 127번지 일대, 구기

동 53번지 일대, 평창동 260번지 즉 6동 지역에 취락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폐율 60% 이내인 경우에는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 연면적 300㎡이내로 건폐율 40% 이내의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 등 두 가지의 건축규제 완화가 시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께서는 이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 지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추진 내역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의 설립을 촉구합니다. 지난 11월 23일 통계청은 장래 인구추계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2000년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7%를 초과하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였고 2019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30%를 상회하는 초고령 사회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생산가능 인구 10명이 노령인구 1명을 부양하였으나 앞으로는 생산가능 인구 3명이 노령인구 1명을 부양하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복지과 관련한 예산은 정책적이고 증가일로에 있어 자치구 예산에 많은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사회안정망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피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종로구가 필요한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묘공원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묘에 종로구 관문인 숭인동에 가면 관훈장을 모신 동묘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 동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관훈장은 삼국지에 나오는 관훈장으로서 중국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동묘 주변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마치 노점상에 임대한 상황을 재현하고 있었으며 내부에도 문화재가 과연 동묘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목각으로 되어

있는 목상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보물 제42호로 관리되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 일번지라고 합니다. 문화 일번지의 동묘공원이 이러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2002년 5월에는 30억 또는 60억의 인구가 집중하는 월드컵이 열릴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수는 6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국인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 복원한다면 많은 중국인들에게 많은 호감을 줄 것입니다. 동묘공원의 합리적인 활성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 유료광고 조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종로구의 재정수입 확충 방안을 묻고 계십니다. 우리 종로구는 2000년도에 종로구 유료광고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종로구가 발간하는 모든 인쇄물에 대하여 유료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또한 지역에 있는 기업체의 홍보를 강화하여 다양한 이익을 보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유료광고조례에 의한 세외수입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이 유료광고 조례의 확충을 통한 재정수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400여 명의 종로가족 여러분! 그리고 19만 종로구민 여러분! 마지막 한달을 잘 마무리하셔서 보람찬 2001년도의 수확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以煥 安載弘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劉燦鍾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燦鍾委員 안녕하십니까? 劉燦鍾議員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金以煥 議長님을 위시한 金正大 副議

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풍요로운 종로 만들기 위해서 진취적인 비전을 제시하시는 鄭興鎮 區廳長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첫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남동 기상청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와 건물을 구 소유로 전환하기 위해서 몇 차례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아무야 별 진전사항이 없습니다. 지금은 흉물스런 유령의 집처럼 되어 버렸는데 구청장님께서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속히 서울시와 재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부지를 잘 활용해서 침체된 교남동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동기능 전환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자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타구에서는 일부 민원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종로구는 기능을 구로 이관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수도, 보도블록 파손, 쓰레기문제, 주차문제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민원 대부분이 구의원들에게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동으로, 동에서는 구로, 구에서는 과로 보내진다고 하는데 그 업무 폭주로 인해 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아보기 힘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동에서 행정지도권이 미약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특별 부서를 구성해서 민원을 전담하든지 타구의 사례를 종합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우리 종로구의 복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주택관련 분야 민원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10㎡미만, 그러니까 1,2평 미만의 시설물들이 패널이나 새시로 옥상에 설치되어서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3,4

년이 지난 후에 구청에서 위법건축물이라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어떤 경우는 더 큰 규모의 시설물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정과 완화정책이 있어야 되겠으며 또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건축물을 4층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층 및 6층 심지어는 7층까지 건물이 지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설계상 지하라고 하는데 반지하의 개념은 4면 중에서 2면이 1/2이 대지 내지는 다른 시설물로 접해 있어야만 반지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상에 쏟아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구에서 현장확인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설계사에 의해서 설계도면만 맞으면 준공 처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옥상의 미미한 시설물들을 건축법 위반이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또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주차단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1시에서 14시까지를 주차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살고 있는 친인척들이 주말에 교남동을 방문했는데 위법주차로 견인조치까지 당하는 사례가 있고 주말이면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우리 동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융통성있는 단속을 실시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소위 말해서 봉어빵 정책으로 무조건적인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단속을 실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부지역 문화센터 건립 현황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문화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부지역에는 구민회관, 동부여성복지회관 등 다양한 문화센터가 있지만 서부지역에는 문화센터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민선2기 마감을 앞두고 계신 鄭興鎮 區

廳長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劉燦鍾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주민들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오늘 질문과 경청을 위해 모두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전의 일괄 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1時55分 會議中止)

(14時38分 繼續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鄭興鎮 區廳長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鄭興鎮 區廳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鄭興鎮 존경하옵는 金以煥 議長님, 金正大 副議長님! 議員님 여러분! 이제 겨울의 문턱에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가정에서는 김장 준비로 부산하고 또 겨우살이 준비로 꽤 바쁜 이때에 오늘 존귀하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여기 섰습니다. 이 겨울 종합대책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제설대책에 대해서 염화칼슘 준비라든가 또 제설장비를 점검하고 또 화재 예방 등 겨울에 일어날 모든 제반 여건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동절기 지역살림을 보살피기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11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연이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지적과 지도로 구정 방향을 제시해주신 열의를 보여주셔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창출과 고른

지역 발전에 결실을 얻기 위한 구정 운영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경험과 많은 연구를 토대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 건설을 위하여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소중한 구정질문은 행정을 집행하는데 좋은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질문에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구정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번째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이며 승인2동 宣相善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우리 구의 재정 확충을 위한 건의 방안은 없는지 등을 질문 주셨습니다.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자체재원을 발굴하거나 교부금을 더 많이 확보하는 등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흥국생명보험, 금호석유화학 건물 등 도심재개발을 통해 자체 세원 증대를 꾀하여 왔으며 금년 중에도 삼성생명보험, 극동빌딩 등이 신축되어서 2002년도에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181억원으로 금년보다 당초 10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참고로 자체재원은 4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을 더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궁 등 비과세대상이 전체 면적의 66.5%를 점유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아 자체재원 확보는 불리해서 세출 수요는 많은 등 여러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 취임 초부터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문화재 등 비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 수입에 준하는 세입 보전을 수차 요청한 바 있으며 입장료 수입에 대한 관리권이라도 이양하기를 요구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2년부터 서울시 조정교부금 산정시 유동인구에 대한 재정 수요 및 쓰레기 처리비용 보전을 반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직접 방문해서 행자부에 10억원, 문화관광부에 50억원 등 특별지원금을 요청하였으며 지난 11월 13일에는 시장과 독대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도 있습니다.

다. 특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시 재원 불균형 시정 조례 건의요구안은 2001년 11월에 시정개발연구원 개발과제로 채택되어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제대로 인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서울시 조례를 개정시 우리 구 특수 예산도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더불어 재정 확충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항상 구의 재정을 염려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용지 관리상 미비점을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등을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잘 알고 계시지만 하천법의 적용대상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 고시하는 하천으로 우리 구 관내에는 청계천과 홍제천이 있으며, 소하천정비법의 적용대상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 고시하는 소규모 하천으로 관내 홍제천의 지류인 평창천과 구기천의 4개 구간 6,052㎡가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우리 구에서 부과한 점용료는 2000년도 기준 허가분 2건에 764만원과 무허가분 2건에 89만원이며 이에 따른 민원사항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부지를 점용한 경우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부지는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분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소하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부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분의 100%만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하천법은 건설교통부에서, 소하천정비법은 행자부에서 관할함으로써 발생한 입법상의 불일치로서 소하천정비법을 제외한 여타 관련법령상의 무허가분은 점용료가 공통적으로 허가분의 120%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하천정비법상 무허가분에 대한 점용료도 허가분의 120%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의원님의 예리하신 지적에 감사드리며 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개정을 건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 혁신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 혁신은 지난 '98년부터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 및 경영 혁신 추진 지침에 따라 계속 추진해왔던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정년 단축, 퇴직금 누진제 폐지, 연봉제 도입, 보수 삭감 등 정부 지침을 100% 이행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구민생활관, 구민회관 등의 총 이용인원은 243만여 명으로 월 평균 24만 3,000명이 이용 전년도 대비 약 12.2%가 증가했으며 10월말 현재 49억여 원의 수입을 올려 연말까지 약 8억여 원의 경영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2년도 수입목표는 60억여 원으로 전년도보다 늘어난 규모이고 순수익은 약 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민간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신규 프로그램 개발, 시설의 현대화, 친절의 생활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가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많은 이윤도 챙겨야 되겠지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익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적은 이윤을 내더라도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運營委 幹事이신 李東奎議員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이신 劉燦鍾議員님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민원에 대하여 종합처리반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동기능 전환 문제점, 동기능 이후 적절한 인력 배치 여부,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등을 질문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구민들께서 동기능 전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이 향후 생활민원의 종합처리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동기능 전환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가 100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한 건데 제가 전국 시·군·구 단체장의 장으로 있을 때부터 만장일치로 이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중앙정부나 관계 여로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정부 안대로 설치되어서 결국에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자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매스컴에서도 불합리한 점을 지적한 바 있고 해서 저희들은 현실성 있는 그야말로 현장민원을 중시한다고 한다면 동기능을 환원시켜 줄 것을 바라고는 있습니다.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 중 주민의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현장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생활민원 증계소, 생활민원 처리 기동순찰대, 일사천리 창구 운영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민원의 대다수인 건축, 교통, 가로정비, 토목, 환경 등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을 종합 처리할 경우 그에 따른 장비 및 인력과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향후 기능부서와 중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사료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에서 처리할 때처럼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 개선 등을 통해 대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의 원상복귀 문제는 수차례 관계기관에 문제점을 보고 건의하였으며 정부의 계획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사무국의 완전한 독립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처리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사무국의 역할은 주민 편익증진, 주민 복지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의 기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또한 집행부와 의회간의 원활한 협조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의 독립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항으로서 관련법령 개정 등 향후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추이에 따라서 대처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李東奎 運營委 幹事께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

문으로 보물 1호인 동대문이 종로구 관내에 소개함에도 동대문구청의 명칭과 심벌마크에 동대문을 계속 사용하는데 이를 제재할 방안은 없는가 등을 질문 주셨습니다. 동대문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지만 일제 때 동서남북으로 그들이 개칭해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개칭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명칭과 구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인지문이 위치한 지역은 구동 제도 전환에 따라서 1943년 4월 1일에 원래 동대문구에 속해 있었으나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6호에 의거 종로구에 편입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구역은 홍인지문이 건축된 이후의 행정여건에서 정한 것으로서 동대문 본래의 이름이 홍인지문임을 감안할 때 상징적 건축물인 동대문 소재지와 임의적인 관할구역이 동시에 일치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대문구의 심벌마크가 홍인지문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관할구역이 아니라 예전 구동제도 실시 때부터 있었던 지역적인 상징성과 그 지역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제작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우스개소리로 동대문구에 동대문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대문이 없는 곳에서 동대문구라고 하는 것은 그 구가 구의 명칭을 바꿔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 구의 행정구역상 혼동이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향후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동과 창신동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많은 국민들이 창신동이나 승인동이 동대문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신설동을 비롯한 접경지역에 승인동과 창신동이 종로구임을 이렇게 잘 알게 하는 그런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사업 동기능 이양은 어떠한가 등을 질문 주셨습니다. 2000년 12월 동기능 전환에 따라 그간 동 단위로 시행되어 왔던 주민 편의

소규모사업들이 구청으로 이관되어 소규모사업에 도로포장, 하수관 교체, 난관설치 등은 토목과에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의 인력 감축으로 또 자체적으로 소규모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토목과에서는 정원에 비하여 현원이 모자라지만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기능 업무가 다시 환원되고 각 동에 토목직 인력을 보강한다면 소규모사업을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그 전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소규모사업 즉시 미집행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약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 홍보와 적기 수거가 안되고 있는 문제, 지봉로에 대한 물청소와 청룡사 낙산 물청소가 안되고 있는 문제, 가로변 청소원 배치 현황을 아시고 싶다는 문제, 그리고 창신동 파쇄장의 폐냉장고 해체 시 프레온가스 처리 문제, 그리고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및 예산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 주셨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 홍보 실적은 연 454건으로 월 평균 4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단속으로 연 4회 분기 1회씩 해서 연인원 720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 수시단속으로는 매일 25명의 구청 단속원으로 공무원 3명, 공공근로 20명, 공익요원 2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는 현재 5대로서 내년 14대를 증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단투기 안내판 설치는 200개소를 해놓고 있으며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 설치는 10개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안내전단만 하더라도 4만매를 배부했고 2001년 8월 종로사랑지에 특집 게재를 해서 8만매를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지봉로에 대해서 현재 승인 가로청소 담당구역인데 물청소를 하고 있으나 주차차량으로 인해서 물청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청룡사에서 낙산 삼거리를 포함해 사전예고 등을 통해 물청소와 가로청소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간선 도로의 물청소 구역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에 물

청소 차량 2대를 시예산으로 신규 구매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가로변 청소원 배치 현황은 총 113명으로 12m 이상 간선도로를 배치했는데 동십자각 지역 32명, 광화문가가 22명, 연기가로 지역 27명, 승인가로가 지봉로 포함해서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창신동 파쇄장에서 해체하는 프레온가스 냉장고는 없습니다. 프레온가스 냉장고는 종로구 재활용센터에서 전부 수거해가고 프레온가스가 들어있지 않은 냉장고만 창신3동에서 해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프레온가스가 있는 냉장고는 월 평균 80대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무단투기 쓰레기 대행업체의 수거제 실시로 대행업체에서 무단투기 쓰레기를 적극 수거하고 있으나 일부 동의 경우 수거실적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2001년 11월 현재 수거예산은 214만 5,000원 그리고 대행업체별 수거실적은 평야실업이 95톤, 심창기업이 6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승인2동으로 현재 하루 100ℓ들이 450개를 수거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도와 인도의 무단점용으로 시민과 차량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강도 높은 단속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보행등 문제도 자세하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적하신 차도와 인도의 사용은 적치물 무단 점용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반적인 재조사를 실시해서 강도 높은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고 차량 통행 및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고 하고 검토한다고 하는 것을 매번 이렇게 답변시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일부 뜻있는 분들이나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민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자기 광고가 잘 보이도록 간판을 앞에 내놓으면 자기 간판은 더 잘 보이도록 더 앞으로 내놓습니다. 이제 답변에서 나오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金福同委員長께서 질문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로가

불법 광고물이 제일 많다고 해서 자제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토록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삼백만 명의 유동인구 때문에 우리 종로구가 이런 고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단속인원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 따라서 신고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송인2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쫓아가면 그쪽 단속을 하고 또 다른 동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갈 때 다시 송인2동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가게에서 오토바이 상회에서 이렇게 길을 점유하고 보도와 차도를 점유하는 상태가 악순환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개탄해 마지않는 일입니다. 의원님들도 동네에서 뜻있는 분들에게서 많은 질책도 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동에 순방할 때마다 동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나라의 정서는 신고하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되어 있고 또 유교정신으로 겸양지덕(謙讓之德)이 많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는 참으로 어찌면 요원할지도 모르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지만 이것이 과도기라고 사료되어서 지속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단속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신3동 13-20 보안등 철거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금년 9월 한전 선로정비차 이설했는데 보안등까지 철거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시급한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기능 구 이관 후 사각지대화 되고 있을 구동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었는지를 말씀하시고 최소한 1명 이상 증원 배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행자부 지시나 정부의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 한 명씩을 더 뒀는데 감사원의 감사에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4명을 저희가 더 보내고 있습니다. 각 동에 규정보다 3,4명이 많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거기에 민원

이 제기된 분야에 전문직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교육이라도 시켜서 구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市民行政委員會 幹事를 맡고 계시는 洪起瑞議員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명륜마을버스 성균관길 운행방안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성균관길 역사문화탐방로 일방통행로 조성공사로 인해서 명륜1번 마을버스가 성균관길로 운행할 수 없어서 서울시로부터 변경운행 개선명령을 받아 2001년 6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우암길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가 양방통행으로 변경돼서 이것도 대다수 주민의 민원을 일으켜서 올바르게 잡혀진 내용입니다만 당초대로 마을버스를 성균관길로 운행토록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업체인 와룡운수와 협의하였으나 서울시조례규정에 의거 일반노선버스 운행에 설치되어 있는 13개소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소를 3개소로 축소 조정하여 운행시 경영자가 초래되어 마을버스 운행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서울시조례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마을버스 노선이 상실되고 폐지되므로 우선 기존 노선을 존폐시키고자 서울시에 노선조정을 건의하였고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와룡운수가 조속히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아울러 부득이할 경우 신규운행을 희망하는 업체를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마을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친절하게도 또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막강한 구청장이라고 이렇게 저를 칭찬해주셨는데 조례나 법령을 차치하고라도 민원을 우선시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구청장으로 거듭나라는 그런 요구인 것 같아서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와룡운수측과 주민들의 의견이 합치되도록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여권발급 수수료 과다에 대한 개선대

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수료가 4만 5,000원 드는데 그것을 3만원 정도 인하고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그런 개선사항에 대해서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의원님의 개선사항에 동감하고 국고보조금 요구시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을 매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약 40%의 여권 발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그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겨우 어찌다가 수고하는 직원 한두 명을 해외로 전문토록 하는 일 정도를 해주고 있는데 올해도 이런 개선 방안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런 국가 세입 차원에서 본다면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기간연장에 대해서도 국제적 합의 등 어려운 점이 있으나 외교통상부에 계속적으로 법개정 검토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혜화초등학교 부지사용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吳弼根議員님께서도 질문 주신 바 있는데 '97년 2월 26일 혜화초등학교 이전 계획이 서울교육청에서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학교 이전부지에 구립운동장 등을 건립코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중부교육청의 학교부지 이전계획이 당초 2000년 3월 이후에서 2002년 2월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금년 6월 중부교육청에 혜화초등학교 부지 처리방안 및 서울특별시보조금 120억원을 협의 요청한 결과 중부교육청에서는 2002년 2월 이후 혜화초등학교 이전 후 부지처리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할 계획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중부교육청, 시 체육청소년과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연구 협조로 학교부지에 구립운동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로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안전도에 대해서 염려해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가로등은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가로등주 내에 설치해서 가로등주 감전사고를 예방하고 있긴 합니

다. 다만 분전반 내에 설치된 누전차단기가 민감해서 전체 구간이 부점등되는 경우가 있어서 배선용 차단기와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합리한 시설은 가로등 유지관리에산으로 보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고 또한 관내 일부 노후된 보안등은 현재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누전차단기를 연차적으로 개량 설치하여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적절한 예산확보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종로보건소 인사동 소재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로 이전의 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참으로 소중한 고견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효자동 서쪽 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구민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방자치 최초로 승인등에 저희가 분소를 설치해서 오히려 본소보다도 더 많은 이용객수를 마크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복지수석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종로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분소를 내서 아주 성공적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들의 의료혜택을 위해서 보건소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거기다가 지금 정부가 정된 T/O에 대해서 아주 경직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간호사를 더 많이 채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그래서 이 경험있는 종로구청장에게 묻는데 답변을 해달라 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동과 서에 양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중앙에 위치한 주민들의 이용도가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주셨는데 인사동 110번지에 위치한 전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는 시의 소유인데 우리 구의 복지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기상청 부지와 함께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는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얼마 전에 시와 두 차례에 걸친 미팅을 통해서 인사동 새마을 서울시지부의 자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 주장은 가능한 한 여기 1~4가동의 동사

무소도 거기에 넣고 거기의 문화시설도 넣고 여러 가지 복합공간으로 쓰게 해달라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 점 또한 거기에 넣어서 종로 보건소 분소가 거기로 이동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실시 중에 있으므로 저희가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용역 결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제1안은 공평재개발구역 도시계획 재검토 후 인사동 문화지구에 적합한 문화공간 건물 5층을 서울시에서 신축해서 종로구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안, 제2안은 재개발지구로 건물신축이 불가하므로 본 건물 철거 후 공원, 야외운동장으로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1안을 주장하고 주민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종로구청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할 의향은 있는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2001년부터 조달청에서 최저 낙찰제는 1,0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최저낙찰률 60%를 적용한 기준치입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의 규정에 의거 일반공사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86.745%, 그리고 10억 미만의 공사는 87.745% 최저낙찰률을 적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의 도입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최저낙찰률이라고 함은 당해 공사 계약 금액의 최저하한가를 설정하는 금액으로서 덤핑 등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입찰시 최저낙찰률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절감 문제도 있지만 우리 입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것은 하도급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하청, 재하청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돼서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좀더 연구 노력해서 의원님과 같이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원 확충을 위해서 고궁의 입장료 수입의 일정액을 교부받을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노력을 하고 연구하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고궁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등 4개소로서 모두 사적으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입장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문제는 이미 '98년도에 주관부처인 문화재청 및 문화관광부와 협의 결과 관련법 개정과 전국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의 예산문제를 사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이 개진되어 있는 바 고궁 등에서 받는 입장수입은 전국의 문화재 관리 및 보수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중 일부를 매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문화재 관리 및 보수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국비보조금은 15억 1,328만원으로 문화재 보수비로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과세지역이 많은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해볼 때 입장료 등 일부를 우리에게 배분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엇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관악구는 연 6억 3,000만원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다만 최근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거기도 문화재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가 1억 7,0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도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金福同 豫算特別委員長께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보육정책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안 등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창신동 지역에 보육시설이 많은 것은 상대적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부가 많은 지역특성에 따라서 이 지역에 높은 수준의 보육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자는 수십여 년 간의 정책적 배려에서 다수의 구립시설이 설치된 것이며 민간 보육시설은 보육에 뜻을 가진 분들이 경쟁력에 따라서 시설의 개폐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이 지역의 보육시설 설치신고 접수 시 지역여건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신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신축 예정이거나 신축 중인 어린이집은 도시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으로 향후 지역여건 변동과 보육수요를 검토하여 적정 시설로 전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지역 내 하수관은 시멘트관과 토관으로 되어 있는 등 노후되어 도로 침하 시 하수관이 파손되고 이에 따른 재공사 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시 재공사를 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 우기 시 대학천 주변에 물난리가 난 것은 이 지역의 준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정기적 준설을 요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학천 박스 사각 맨홀뚜껑이 밑으로 내려앉아 요철이 되어 붕괴우려가 있는데 긴급보수공사가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는 도심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지역 여건이 타구에 비해 도시 기반시설이 조성된 시기가 아주 오래됐고 특히 하수 시설물은 노후관이 많아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취약한 하수시설정비를 위하여 청계천 주변에 대한 정비를 '97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총 109억원을 투입해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3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노후 하수관 정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또한 파손된 노후하수관을 재공사 시에는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학천의 하수암거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해기금 8,500만원을 투입해서 2001년 8월에 준설을 실시하였으며 본 지역의 금년도 우기 시 침수 원인에 대해서 분석 결과 우리 구에 100여 년만에 내린 집중호우로 시간당 최대 강수량 177mm로 인해서 하수구의 청계천 용량 부족으로 하수암거가 만관이 돼서 도로 등의 노면수가 배수되지 않아 일시 침수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과 같이 준설이 되지 않아서 역류했다는 주장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후자의 주장도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학천 하수박스 요철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하수박스와 단차가 발생된 사항으로 현재 붕괴의

우려는 없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도로를 평탄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각한 주·정차문제에 있어서 자동차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방법과 버스전용차로를 이탈하는 차량 단속 및 운전자가 있는 차량도 철저히 단속토록 하고 또 동대문종합시장 주차장을 심야시간 대에 협의해서 구민들에게 개방할 의향을 타진해볼 뜻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본래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이 출·퇴근시 원활을 위해서 도로교통법과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제도로써 36인 이상인 대형승합자동차, 마을버스, 통합용버스, 긴급자동차 등이 해당되는데 본 자동차로가 혼잡 정차될 경우 타차로의 운행을 허용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해서 금년 2월 28일부터 타차로의 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 단속실적은 10월 말 현재 4만 1,703건을 단속해서 3만 6,502건에 18억 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주차단속문제는 劉燦鍾議員님의 질의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등의 전면단속은 어쩌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큰 불편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나 주민통행 등에 극히 불편을 주는 주·정차 위주로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특성에 따라서 신축성과 융통성을 발휘해서 단속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시 운전자나 해당차량이 관리인이 현장에 있는 차량은 차량을 이동하도록 계도하고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주차단속이 실적위주가 아니고 스스로 주차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주민생활 편의 차원에서 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고 또한 종로5,6가동이 심각한 주차문제의 대안으로 야간 9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동대문종합시장 주차장 이용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설이 시설주차장으로서 관리인 근무문제 그리고 주차요금관계, 이용자의 새벽 5시에 반드시 출차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이 협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불법광고물이 세종로, 대학로에 난립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근절대책은 없는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해왔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광고주를 한분 한분 만나서 설득하고 해서 큰 분란이 없이 우리가 최우수구 중의 하나로 뽑혀서 10억원을 받은 바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이 샘솟는 종로구에 이런 불법광고물 등이 많은 것은 부끄럽다고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듣기로는 행복이 샘솟는 종로 건설에 먹칠을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면 그러한 아름다운 종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질책도 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슬로건과 함께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 건설을 위해서 착착 진행하고 발전하자는 의미이지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미 완성된 것은 아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로 및 대학로 주변도 많은 광고물을 정비했는데 입간판 및 플래카드, 첩지류 등이 계속해서 발생되어 정비에 큰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첩지물에 대해서는 버젓이 전화번호가 있는데도 현재법이 그걸 추적해서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것이 법이 합리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개탄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가 도심에 첩지물 붙이는 곳에 대해서 첩지물이 붙지 못하는 시설을 일부 해놓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확대해서 더러운, 또 어지러운 첩지물이 붙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깨끗해서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

는데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통흐름이 원활하고 매연 발생이 많은 경사지역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 구기터널, 북악터널, 사직터널을 중점 단속해서 총 6만 6,450대를 점검했습니다. 이 중 배출가스 초과차량 640대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4,64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연측정기를 도로마다 설치해서 음주 측정하듯이 집중적인 단속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종로통은 차량소통이 제일 많은 지역으로 도로 요소마다 단속할 경우 불가피하게 한 차선을 막고 음주운전 단속처럼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매연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사료되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 중 매연과다 배출차량에 대해서는 추적 단속을 하고 자동차의 공회전 안 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대기오염 저감과 에너지 절약도 함께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사료되어 건의도 하고 모두 이 운동에 참여해서 깨끗한 환경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 점에 감안해서 디젤차에만 쓸 수 있는 현미에서 추출한 바이오디젤유를 저희가 시험적으로 사용해서 매연을 30% 절감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차량 전수에 대해서 기름에 디젤유에 20%를 혼합 사용함으로써 매연을 30% 저감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에서 현미 바이오디젤유의 불리한 점은 영하 2도 이하에서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쓰기가 어려운데 더 이것이 개발돼야 하겠지만 봄, 여름, 가을에 확실히 매연을 30%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크에도 이미 보도된 바 있고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되고 우리 구가 환경 일변구로도 이렇게 시범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종로5,6가의 경우 금년도 주민등록 인구가 약 500여 명 줄었다는 통계를 보면서 돌아오는 종로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따끔하게 꼬집어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500명이 아니고 307명이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구기동, 평창동, 해화동 지역은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마다 저희가 자료를 보면 해마다 인구 감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감소가 절반으로 되었거나 소강상태에 돌입했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종로가 무색하다는 金福同議員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아마 인구가 많아서 걱정이 시대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의원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돌아오는 종로를 선전하고 많은 기업체를 방문해서 종로에 투자하기를 권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흥국생명 등 많은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경희궁의 아침' 분양이 모델하우스만으로 100% 달성해버렸습니다. 또 동대문에 '롯데캐슬'도 100%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가들은 종로에 투자할 때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보고말씀과 함께 앞으로는 인구 문제 때문에 저희는 약 30만 정도가 적합한 선이 아닌가 해서 그러한 계획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건설위원장이신 安載弘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하되 주차비를 경감하거나 주차비 징수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 제도는 '96년도 7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오던 중 갈수록 폭증하는 차량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구획으로 인한 주택가의 야간 주차문제 때문에 이웃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함은 물론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통행이 어려워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결책으로 서울시에서 금년부터 전역 전 구청 모든 주택가 5.5m 이상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10월 현재 117개소에 3,068구획을 실시하여 주차

요금을 전일제 4만원, 주야간은 각 3만원씩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주차구획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경비로 산출된 금액이며 서울시는 전 구청 전 지역에서 통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주차비 견인료 경감은 형평성 문제, 관리비용 문제 등으로 해서 우리 구에만 독단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계속 서울시 타구청 등과 형평을 맞춰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시민들 여론이나 매스컴 보도로 보면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도 그 나머지 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해본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또 여타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동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수요가 부담제도 신설 및 토목과와 지역경제과의 업무처리 비효율을 제거할 대안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까지 이렇게 연구하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는 지역 여건상 도시가스 보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암반이 많은 지역이 많고 높은 지대가 많음으로써 사업자가 이윤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 기피하는 현상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참고로 제가 취임 당시에 20.6%였는데 2001년 10월말 현재 82.95%로 의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끌어올린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安載弘議員님이 계시는 평창동 지역은 68.9%로 비교적 우리 구에서는 평균치를 밑도는 형편인데 2002년도에 평창동 388번지 일대 약 11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어서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사비 일부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주셨는데 '94년도에 이 제도를 시행하다가 수요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민원발생으로 이 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 규정을 다시 부활해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는데 수요가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집

행의 측면에서 폐지한 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통보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부서간 업무처리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민원지역을 조사해 굴착에 따른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조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검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수요가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건축규제 완화 문제 등과 관련한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자연경관지구 중 불합리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 9월부터 석 달 간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삼청동 등 4개 지역의 2만 7,626㎡는 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평창동 등 12개 지역 6만 8,388㎡는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에서 입안하여 서울시에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역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 입안한 내용대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동 148-16일대 여객자동차 정류장 해체에 대한 업무추진 정도를 질문 주셨습니다. 평창동 여객자동차 정류장은 '90년부터 해제 민원이 있어서 이를 추진해왔으나 서울시 반대의견으로 인해서 해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도 서울시에 여객자동차를 해제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본 정류장 인근 3km 이내에 있는 운수회사에서 일부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고 향후 이 노선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시설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판단이 돼서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인근 운수회사에서 매입의사가 있는 토지 일부를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재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결과에 따라 향후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국방부에서 평창동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를 발표했으나 인근지역이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별 효과가 없는데 고도

지구에 대한 처리계획이 뭔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북한산 등 경관이 빼어난 명산과 경복궁, 경희궁 등 고궁이 입지해서 고도제한 등 많은 제한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9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직접 건의하는 등 불합리한 고도제한을 완화해주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고도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군부대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사진촬영도 하고 자료를 가지고 대통령께 직접 두번이나 건의해서 이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풍치지구 또는 그린벨트의 완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사료돼서 기쁜 점도 있으나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이 혜택이 더 많아야겠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부암동 100번지, 구기동 53번지, 홍지동 129번지, 평창동 260번지 이른바 6통 마을인데요 총 4개소에 대해서 2000년 9월 20일 서울시에 관련자료를 제출했고 현재 서울시 용역의뢰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초조사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조사를 마치게 되면 서울시에서 건교부에 승인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회관 설립문제 등을 질문 주셨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65세 노령인구가 7%를 넘어섰는데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 사직 경로당을 방문하셔서 우리의 노령인구나 노인정책에서 질문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종로구는 7.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령인구가 많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시대에 맞게 우리는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서 시설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저희가 백방으로 조사를 했는데 부지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좋은 부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서울시에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도와주시기 바라고 저희는 이 점에 대해서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대지 500평, 건물 700평 규모의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보물 제142호인 동묘는 중국의 용장관훈장의 위패가 모셔진 곳으로 월드컵 대비 중국 관광객이 대거 방문할 것으로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에 宣相善議員님이 계시는데 대신해서 이렇게 질문토록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마는 어디 지역이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종로 전 구에 대해서 그런 관찰을 하고 연구하시기 때문에 동쪽까지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제례를 지내는 사람이 많고 속칭 무속인들이 많이 와서 담을 넘어와서 그런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중국관광객이 월드컵 특수로 수많은 관광객이 올텐데 틀림없이 동묘는 방문할 것으로 돼서 우리가 좋은 지적임을 알고 아까 구·시회의를 통해서 시에 동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수공사비를 요청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료광고 조례 제정으로 광고 게재로 인한 세외수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의 그 대책까지 질문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대한 조례를 2000년 9월 25일 제정했는데 동시행규칙 제정 이후 금년부터 유료광고에 대한 세외수입원을 발굴한 결과 종로사랑지, 관광안내지도, 여권케이스 등에 유료광고를 유치해서 지금까지 총 1,172만원의 세외수입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양한 분야에 유

료광고를 도입해서 세입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劉燦鍾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교남동구 기상청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현황은 여러 번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시에 내용을 알아본 결과로는 민자를 유치해서 공연장을 건립해 가지고 주변의 세종문화회관, 시립미술관 등과 연계해서 문화벨트를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 불황으로 말미암아서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연내까지 민자유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당초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될 경우에는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있는데 시장계 직접 독대해서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시장계서는 문화시설을 만들어서 종로구에 이관토록 하겠다고 소위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물은 4층 이하로 건립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7층까지 건립하고 있어도 적발하지 않아 가지고 10m<sup>2</sup>의 옥상에 판매되는 새시로 시설된 시설물은 3,4년 후에 불법건축물로 판명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라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4층까지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관상으로 5층이나 6층 이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건물은 경사가 심한 구릉지에 건축법상 지하층 규정을 적용받아서 건립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법에 의한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은 없습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2조1항제4호를 보면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옥상에 10m<sup>2</sup>는 시설물로 설치한 3, 4년 후에 위법건축물로 판명된다면 이는 항공촬영의 판독에 적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심하면 10년 이상 더 된 것도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이 앞으로는 많은 개정을 요하는 것이 있는데 저의 경험상으로 볼 때도 오래 되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도 있지만 방금 지었어도 누가 고발하면 고발조치 되는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것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사료되기도 합니다. 10㎡미만의 생계형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구제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따라서 생계형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건축조례 개정을 금년 7월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부문화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의원님께서서는 동부에 구민회관이 있고 주로 동부에 여성문화센터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에는 구민생활관이 있고 해서 중앙까지는 되어 있는데 서부에는 지금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부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번에도 보고말씀을 올린 바 있었는데 서부문화센터는 수영장, 소극장, 체육관, 문화전시실, 주차장 등으로 다목적 시설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115평이고 연면적은 2,044평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는 이미 마치고 관계기관과 국방부, 산림청과 대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 5월에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공원조성계획위원회 변경심의 의뢰했고, 9월에는 서울특별시 건축비 21억 6,000만원의 특별교부금도 신청했습니다. 2002년도 시비 확보를 4억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1년 10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회의결과 소위원회를 구성 현장확인 후 재결정하기로 하여 지난 11월 위원 다섯 분이 현장방문해서 제가 가서 현장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01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의견을 상정하여 공원시설 변경계획을 심의 결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향후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매입과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 등을 실시해서 2003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서

서부지역 주민복지관으로 활용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최선을 다하고 성심성의껏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잘 되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부족한 답변이긴 하지만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해량해 주시옵고 내일 또 계속해서 질문 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도 좀 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以煥 鄭興鎮 區廳長님! 장시간 동안 자상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제1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제1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지 못하신 나머지 의원님들께서는 내일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00分 散會)

○出席議員 18人

金以煥	鄭泰淳	李憲九	吳錦南
千相旭	玄壽漢	安載弘	丁炳煥
劉燦鍾	李炯述	洪承台	金福同
朴鍾植	吳弼根	洪起瑞	李東奎
金正大	宣相善		

○出席關係公務員

區廳長	鄭興鎮
副區廳長	盧張鐸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財務局長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保健所長 李星世

